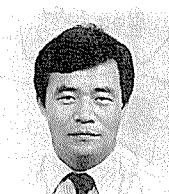


여성에게 많은 병

“질염”



이 용 우

질염은 여성의 나이나 성생활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며, 이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자주 찾게 된다.

질염은 그 원인균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으며 치료방법 또한 서로 달라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적당히 치료하게 되면 재발 또는 재감염되어 환자와 의사가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염이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비정상적인 질분비물, 양의 증가, 냄새의 변화, 질출혈, 외음부 소양증 등을 호소한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한 여성들은 월경주기에 따른 정상적인 질분비물인데도 질염이 있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여성이면 최소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

여성의 월경주기는 평균 28일형이 대부분인데, 5일 정도 월경이 있다. 월경이 끝나면 난포기 또는 자궁내막 증식기가 있는데 배란일을 기준으로 전반기 약 10~14일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외음부는 늘 습한 상태이며, 질분비액은 양이 점점 많아지고 점액성이며 무색, 무취, 투명하여 마치 달걀의 흰자와 같고, 배란기에 그 양이 최대로 많아진다. 배란기가 지나면 질분비물은 현저히 줄어들고 우유빛 같으며 외음부는 건조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성숙해지면서 뚜렷해지고, 특히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이 있으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질내의 정상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내에는 세균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산균은 질상피세포내의 당원을 유산으로 분해하여 질내 산성도

를 4.5~5.0으로 유지시켜 비정상적인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균은 항생제의 남용, 피임약, 호르몬제의 남용, 무분별한 성관계, 빈번한 낙태수술, 부적절한 위생환경, 불필요한 질세척 등으로 인하여 질내의 정상균주들의 평형이 깨져 비정상적으로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면 질염이 발생하게 된다.

질염은 비전염성과 전염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전염성은 불필요한 질세척, 질내 이물질, 여러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 내지 과민반응, 폐경기 또는 유년기에 발생하는 것이 이에 속하며, 전염성으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성 질염, 세균성 질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성질염, 클라미디아 질염, 임균성 질염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는 꼭 전염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

세균성 질염

비특이성 질염 또는 세균성 질증이라고도 하는데, 처녀보다는 성적으로 왕성한 여성에게 많으며 이는 질내의 유산균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감소되어 발생되는 것이다.

생선 썩는 냄새 같은 악취, 황갈색 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항생제 등의 임의적 투여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

칸디다성 질염

이것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아주 흔한 질염의 하나이며, 아주 심한 외음부 소양증과 우유가 엉긴 것 같은 질분비물이 특징이다. 임신, 당뇨병, 항생제 장기투여, 경구

질염은
원인균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치료방법도
서로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임약 복용시 잘 발생하며 주로 항문주위, 구강내, 서혜부, 남자성기 등의 피부에 있는 진균이 성생활의 방법과 개인위생의 습관에 의해서 감염된다.

한번 감염이 되면 다른 질염보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며, 특히 재발이 잘 되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진균성 질염과 더불어 매우 흔한 질염으로, 트리코모나스 원충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감염경로는 무분별한 성관계, 질세척, 항생제의 남용, 경구피임약 복용시 항문주위, 대변, 보균자로부터 감염이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황록색의 대하, 소양증, 성교통, 질출혈 등이 있으며, 대개 배우자는 보균자 상태여서 여성만 치료해서는

재발이 되므로 남녀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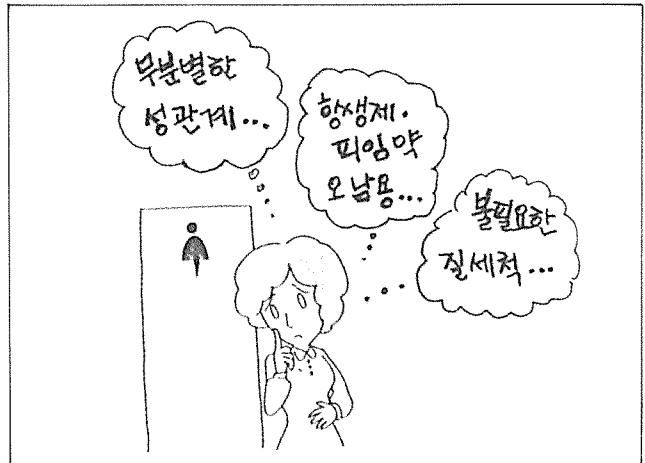
기타의 질염

기타의 질염으로는 임균성 질염, 클라미디아 질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성 질염 등을 들 수 있다.

임균성 질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클라미디아 질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본인도 모르게 골반염 등을 일으켜 불임증의 원인이 된다.

음부포진은 입술주위 등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성생활의 습관에 의해 감염이 되며, 아주 심한 소양증과 좁쌀같은 물집이 생기고 2차적으로 세균감염이 되면 통증이 심하다. 특히 임신중에 감염되면 분만시 신생아에 감염되어 치명적일 수 있다.

무분별한 성관계,
항생제·호르몬제·
피임약의 남용,
빈번한 낙태수술,
불필요한 질세척 등이
질염의 원인이다.





**질염은 여성에게 아주 흔한 질환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발생된다.
발병이 되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자기 독단적인
치료는 병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며, 체내에 면역이 생기지 않는 한 같은 부위에 재발이 잘 된다.

질염의 예방 및 치료

질염은 여성에게 아주 흔한 질환으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발생된다. 어린 아이와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적으로 왕성한 연령층의 여성에서는 항생제의 남용, 경구피임약, 자궁내 피임장치, 불필요한 질세척, 불결한 위생, 문란한 성생활, 잦은 임신과 낙태 등이 주된 원인이 되므로 여성자신이 주의해야 한다.

발병이 되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자기 독단적인 치료를 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다양한 질세척제와 기구가 판매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데, 정확한 사용방법 및 시기를 알아야 하며, 빈번한 질세척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므로 삼가해야 한다. 또한 외음부의 청결과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분별한 성관계는 여러가지 원인균에 의한 감염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까지 감염시키므로 유념해야 한다. 치료를 하여도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되거나 성관계시 잦은 질출혈이 동반되면 젊은 여성일지라도 반드시 자궁암 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필자=한림의대부속 한강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

